

가설 그리고 규모가설이 그 동안 대표적으로 검정되어온 가설이다. 특히 규모가설은 여러 측면에서 검정되고 있는데, 기업의 정치적 노출과 관련하여 정치적비용과의 관련성을 유무를 검정하여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의 실증연구에서만 유의적으로 검정되었으며, 많은 실증연구에서 규모가설은 유의적으로 검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모변수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제일 설명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규모 그리고 총자산이 제일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설검정결과는 해운산업의 속성이 반영된 검정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해운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부채비율이나 해운위험이 월등히 높은 산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유지에 당연히 정치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은 보유선박의 척수에 당연히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변수중에서도 시장점유율 규모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로 도출된 것은 해운산업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이제는 우리 해운산업도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해운시장은 그 어느 시장에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한 경쟁적 시장이므로 우리 해운산업이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출관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우리 나라 은행 합병의 효율성 분석

해운경영학과 유 학 수
지도교수 이 기 환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지난 1997년 10대 재벌 중의 하나인 한보의 파산과 기아자동차의 부도유예협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실체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고 당시 33개의 국내금융기관 가운데 5개 은행이 퇴출되고 5개 은행이 합병 소멸됨으로서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진입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은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의 합병이 최선의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압력은 금융기관별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보다는 생존의 선택으로 합병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합병이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인위적인 합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효율성 추구를 위한 자발적 합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분석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여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하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며 영업자산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므로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동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의 계량적 실증분석과 모의합병을 통하여 합병의 어떠한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합병이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1995년부터 규모 및 범위의 경계를 검정, 이를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모의합병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합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15개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에 의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계측해본 결과, 은행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며, 범위의 비경제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은행합병을 3% 내외의 비용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합병가능 조합 105개 중 약 64%는 오히려 합병 후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상에서의 은행간 합병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우선 가장 확연히 드러나 실험 결과를 보면, 소형은행 상호간합병은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부담이 모든 조합을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그 어떤 규모별 합병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비용감소를 시킬 유인 또한 적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중형과 소형은행간 합병은 비용증가를 초래할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감소의 효과 또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은행간 합병은 특질의 균형관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부터 1999년 기간동안 한국의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기존의 성장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은행들이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비용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내재됨에 따라, 모의합병 분석의 결과 또한 전반적으로 합병만으로는 비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기관 합병의 기대효과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 합병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합병의 성공여부는 합병의 목표, 합병추진전략, 외적환경 등 제반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합병에 앞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타당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합병상대를 선택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합병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의 모색이 현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트랜스로그 방식의 합병분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 들어 은행의 생산 기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규제나 기술 변화 등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비용구조만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으므로 위 모의 실험결과는 수익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은행 퇴출을 포함한 기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비용함수가 분석됨으로써 자료의 시계열간 연속성과 대칭성을 갖지 못하였다.

은행합병의 효율성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지적 유연성을 지닌 트랜스로그 비용함수 형태 대신 전구간에 유연성을 갖춘 비모수함수 형태를 이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는 비용측면에서의 파악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이윤함수 접근법에 의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세계 유수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종간의 합병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연구가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가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